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9년 하반기 뉴스레터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NEWSLETTER No. 24

학교소식

- 1 현장 중심 수업 소개
- 2 행사/학술/연구
- 3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 4 교수동정
- 5 석·박사과정
- 6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 7 시민정원사
- 8 시민환경대학

동문소식

- 9 동창회
- 10 동문동정
- 11 환경대학원 발전기금

·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제37기 모집 안내



발행인 홍중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발행일 2019년 12월 30일 담당교수 오능환

학과조교 강태석 박철순 윤병석 이민호 허윤상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김배 학생기자 강인구 김진석 E-Design 흑석동작업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82동 환경대학원 TEL | 02-880-5642 FAX | 02-886-7935 <https://gses.snu.ac.k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NEWSLETTER No. 24

학교소식



1. 현장 중심의 수업소개

1.1 Seminar in Urban and Environmental Policy / GIS : 송도 답사



환경계획학과 지거 쉐(Jige Quan) 교수가 담당하는 Seminar in Urban and Environmental Policy 수업과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수업은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수업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zoning 설정 정책 등에 대해 토론하며, GIS를 이용하여 데이터 관리, 분석 및 시각화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와 실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의 현장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2019년 11월 Jige Quan 교수와 석박사과정 학생 21명이 스마트시티의 대표적 도시인 송도를 답사하였다.

첫 번째로 방문한 G타워는 송도국제도시의 센트럴파크 내부에 자리한 타워로 UN 국제기구 본사 중 대표적으로 GCF(녹색기후기금)가 입주해 있으며, 33층에는 IFEZ홍보관이 자리잡고 있어 송도 국제도시의 계획 단계와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중식 후에는 학생들이 준비한 인천 송도에 대한 발표와 경기연구원 김영룡 박사의 특강이 있었다. 학생들은 인천 송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발제를 하였고, 김영룡 박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스마트시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강연을 하였다. 실제로 스마트 시티가 무엇을 정의하는지, 어떠한 행위와 개발이 스마트한 것인지 함께 토론하였다.

마지막 행선지인 인천도시역사관에서는 박물관 해설사로부터 인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현재 계획 중인 것과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인천 타워 건설 계획이 예산 상 어려움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는데, 이렇듯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도시계획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닌 여러 방면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top-down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 거주자를 고려한 bottom-up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향후 더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1.2 환경관리학 전공 답사 : 한국남동발전 에너지파크



환경계획학과 이동수, 윤순진, 홍종호, 오능환, 정수종 교수의 전공 수업의 일환으로, 전공 소속 학생과 교수진은 2019년 11월 8일 영흥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 에너지파크를 답사하였다.

한국남동발전 에너지파크는 국내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자 생활 필수 에너지인 전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설인 동시에,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생활의 중심지이자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또한 전기 및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내 전력산업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견학의 장으로, 에너지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관리학 전공 답사팀은

국내 전력산업에 대한 정보를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에너지와 자연의 소중함, 그리고 최첨단 친환경 화력 발전소의 선진 시스템을 소개받았다. 나아가 양수,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요 모형들을 통해 전기가 만들어지고 가정에서 활용되는 과정과 자연 친화적인 화력발전소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체험했다.

이번 답사를 통해 환경관리학 전공 학생들은 앞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환경관리학 전공 교수 및 학우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



1.3 환경생태계획 : 갯골생태공원 답사



환경조경학과 송영근 교수가 담당하는 ‘환경·생태계획’은 건강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편의가 공존할 수 있는 현명하고 지속가능한 공간계획은 무엇인지 탐색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보는 수업이다. 수업과정 중 생태공원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조성·관리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기 위해 시흥시에 위치한 갯골생태공원을 방문하였다.

갯골생태공원은 소래염전이 폐염된 이후 2003년부터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수도권 대표적 생태공원이다. 공원의 면적은 약 150만 m^2 이며 2012년에는 생태계의 우수성과 내만형 갯벌 경관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II급 말뚝가리, 검은머리갈매

기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갯빛개구리매, 저어새가 관찰되며 산림청 희귀종인 모새달 군락이 있다. 자연을 품은 이 공원은 각종 염생식물과 갯벌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을 관찰하거나 복원된 염전에서 직접 소금을 생산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갯골생태공원에는 공원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해설사가 있어 공원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공원은 민족역사의 아픔을 가진 곳이기도 했다. 과거 이 지역은 소래염전이라 불리는 소금생산지로 1934-1936년에 조성되었으며 갯골을 중심으로 약 145만 평의 면적을 이루고 있었다. 당시 생산된 대부분의 소금은 수인선과 경부선 열차를 통해 부산항에 옮겨진 후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소래염전은 광복 이후에도 천일염이 꾸준히 생산됐지만 천일염 수입 자유화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1996년 7월 31일 폐염되었고, 이후 토지의 주인이 개발을 위해 소금창고들을 태워버리는 등 적잖은 시련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시흥시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생물들의 서식처로 자리 잡게 되었다.

환경생태계획 수강생들은 갯골생태공원 답사를 통해 생태공원에서 살아가는 생물들과 자연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또한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공간의 변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자연은 어떠한 형태로 변화를 적응해 나가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4 도시설계의 과제와 방법 : 사회공헌형 통영 재생 답사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김세훈 교수가 담당하는 ‘도시설계의 과제와 방법’은 도시설계와 관련된 각종 이론과 사례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다뤄보는 수업이다. 이 수업에서는 도시설계와 관련하여 도시의 규모와 위치, 경관, 보행과 이동성, 다양성과 단조로움, 도시의 취약성, 도시의 쇠퇴 및 재생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또한 이 수업은 수강자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사회공헌형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대상지는 통영시 도시재생지 일대로 진행되었고 이곳에서 3박 4일 동안 현장답사를 진행하며 통영시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해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남도 통영시는 한때 거제와 함께 우리나라 조선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었으나, 조선 산업이 위축되면서 대상지인 도남동 일대는 유희부지로 남게 되었다. 이후 이곳은 통영시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되었는데, 본 수업에서는 이 중에서도 도남동 당산나무 주변 일대를 대상지로 선정해 학생들과 함께 조사하고 계획안을 만들어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대상지에 대한 역사와 사업에 대해서 오은석 통영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설명을 들었고, 이후에 사회공헌단 학생들이 대상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든 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였다. 그 후 주민들과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크게 3개의 조로 나뉘어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나가는 마을 모습에 대해 계획하고 그려보았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각 조별

로 주민들이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무척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다.

도시설계와 관련된 각종 이론과 사례에 대해 다루는 수업에서 직접 도시재생지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도시재생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1.5 도시사회혁신 리빙랩 : 관악로 지하보도, 서울 시민청



2019년 2학기부터 신설된 도시사회혁신 리빙랩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지역 커뮤니티의 문제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론의 현장 적용을 장려하고 있다. 수업의 첫 4주는 도시사회혁신 관련 이론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민관 협력과 주민참여의 장점과 한계, 커뮤니케이션 방법론 등이 이 과정에 포함되었다. 5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팀을 꾸리고 대상지를 선정하였는데, 이번 학기에는 총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각각 관악로 지하보도와 서울 시민청의 인식 및 이용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프로젝트에 돌입한 이후로는 수업 시간을 이용해 자율적으로 팀별 회의와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관악로 지하보도팀은 대상 지역의 환경과 개선 사례를 조사한 후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청림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관악구 의원을 만나 개선안에 대한 회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실질적인 이용객 조사를 위해 요일별, 시간대별 통행량 조사와

통행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서울 시민청팀은 시민청의 설립 배경과 취지 등에 대한 사전조사 후, 시민청 운영 담당자를 만나 인터뷰를 통해 시민청의 전반적인 운영 방침 및 현황을 취척하였다. 이를 토대로 시민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석자를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시행하며 이용객들의 만족도 조사와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해당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과 결과는 12월 12일 환경대학원과 사회과학대학에서 주관한 사회혁신교육 성과공유회에서 발표되었고, 결과 보고서는 책자로 제작되어 연말에 발간될 예정이다. 수강생들은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보는 것’을 본 수업의 큰 장점으로 꼽았으며, 이론으로는 배울 수 없었던 현장 경험이 큰 자산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2. 행사/학술/연구

2.1 환경대학원 행사

1) 중국 연변 일대 답사 : 개발도상국 도시환경 국제개발 교육연구 사업



최근 한국의 신북방정책이나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극동정책,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 등 동북아 정치경제 지도를 새롭게 구상하는 계획에서 두만강 하류지역은 그 지정학적 위치성과 초국경 경제협력의 잠재성, 생태보존의 가능성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한편 두만강 하류 접경지역을 둘러싼 국제교류의 장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환경대학원은 2019학년도 개발도상국 도시환경 국제개발 교육연구 사업을 통해 두만강하류의 중심지인 연변조선족자치구를 중심으로 일대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연변대학 방문 및 두만강포럼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연구자들과의 교류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환경계획학과 정현주 교수를 책임교수로 하여 6명의 교수진과 20명의 학생 등 총 26명이 참가하였다. 현지 답사에 앞서 총 5개의 조를 편성하여 답사지역 사전 조사, 세미나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9월 21일(토)부터 9월 26일(목)까지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에

대한 현지 답사를 진행하였다. 중국 연길, 용정, 도문, 훈춘 등의 지역을 방문하여 대상지의 도시건설 현황과 두만강 지역(도문)의 기반시설 및 상황을 직접 조사하였으며, 특히 조선족 밀집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을 주의 깊게 조사하였다. 그 외에도 연변대학, 훈춘 포스코현대국제물류유한공사 등 기관을 방문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 도시건설과 중국-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중국-북한 접경지대인 연변조선족자치구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사전조사 및 현장답사, 논의 등을 통한 결과물을 토대로 조별로 각각의 주제를 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아래와 같다.

- 주제1 연길 도심지의 확장에 따른 균형발전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주제2 중국동북3성의 지정학적 중심, 창춘의 도시계획과 성장 전략
- 주제3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유동하는 장소 정체성
- 주제4 두만강 하류지역의 초국경 경제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 주제5 두만강 접경지역의 환경문제와 협력방안

2.2 BK21 Plus 기후변화 적응전략 연구사업팀

1) 제43차 콜로키움 : Earth Governance : The State as Environmental Trustee

BK21 환경대학원 기후변화사업팀에서는 2019년 9월 19일 오후 2시부터 환경대학원 205호 강의실에서 43차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강연자는 오클랜드 법학대학의 클라우스 보셀만 (Klaus Bosselmann) 교수로, “Earth Governance: The State as Environmental Trustee”를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보셀만 교수는 개개인이 의사결정 시스템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법철학적 문제와 실제로 어떠한 생태법 논의가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그는 근대주권국가의 개념이 가지는 어두운 측면으로서 대기와 해양이 대표적인 희생자가 되었는데, 이는 ‘주권’이 힘과 통제라는 의미가 있으며, 주권국가는 타자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인 비시민과 외국인, 다른 생물인 동식물, 다른 지역인 글로벌 커먼스와 지구, 다른 시대인 인류미래 및 다른 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신탁(Trusteeship)의 의미와 주권과 국가와의 관계를 재설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2) 제44차 콜로키움 :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 정책 현황 및 전망



2019년 9월 20일,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장훈 센터장을 초청하여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 정책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그는 한반도 고온 관련 극한지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실제로

2018년 여름에 고온으로 인한 기록이 갱신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어느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인 프로세스 접근을 통해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수자원, 생태계, 산림, 농업, 해양 및 수산, 사업 및 에너지, 건강, 인간 정주공간 및 복지(경제) 분야를 손꼽았다. 그는 현재 농업분야는 기후변화에 잘 대비를 하고 있는 편이나, 해양 및 수산 분야는 투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고, 복지 측면에서 극한기후로 인한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현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AR6 시나리오가 진행 예정이라고 한다. AR4에서는 취약성에 중점을 두었고, AR5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다. 정훈 센터장은 마지막으로 KACC의 연구 방향과 노력 등을 소개하면서, 미래를 위한 현재의 준비가 필요하며, Resilience와의 연계, 지자체 중심의 적응사업, 국내 및 국제 협력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 제45차 콜로키움 :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균형 - 자연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가 되는 사회를 위한 철학이란 무엇일까?

2019년 10월 10일 (사)제주올레의 서명숙 이사장을 초청하여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균형 - 자연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가 되는 사회를 위한 철학이란 무엇일까?”를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서명숙 이사장은 제주 올레를 처음 만든 경험을 토대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인간과 철학적 측면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다. 사회생활을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였지만 글을 공부하고 잡지사 에디터로, 그리고 최초의 여성 정치기자로 활동하였으며, 건강이 악화되어 걷기를 시작하고 특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여러 영감을 얻었다고 하였다. ‘길은 행복한 종합병원이다’라는 말처럼, 걷기는 수술 없이 자기 두발로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철학을 설명하면서, 이를 한국에 도입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올레’ 길은 순수 제주어,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으로, 올레길 개발을 위해 사단 법인을 만들어 공공기관과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였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적극적인 설득의 대상이 공공기관보다 마을 주민들이었다는 것이다. 제주도 전체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 생각으로 최소한의 표식만 사용하고, 제주를 상징하는 색깔을 사용하고,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나는 나무로 방향을 알려주는 등 환경과의 조화를 이룬 올레길 개발의 특징들을 설명하였다. 또한 제주의 원형과 토착을 사용하여 그 의미를 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유경제를 실험하고, 서로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철학을 올레길에 담고자 하였다. 서명숙 이사장은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마무리하였다.



4) 제46차 콜로키움 :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적응



2019년 11월 1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적응을 주제로 46차 콜로키움이 진행되었다. 강연자는 안병욱 국가기후변화환경회의 운영위원장(前 환경부 차관)으로, 기후와 대기정책의 통합적 접근 관점에서 강연을 하였다. 그는 산업활동으로 인해

CO2 농도가 최근 100년 사이 크게 상승하여 2019년 5월 기준으로 414.7ppm을 기록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기후변화는 21세기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최대 위협이며, 이것이 야기하는 사회적, 환경적 영향으로 인하여 2050년 경 문명의 종말이 초래될 가능성을 제시한 해외 연구를 언급하면서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강조하였다. 그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또는 1.5°C 이내로 억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후온난화의 양성 되먹임 고리”를 언급하였다. 양성 되먹임 고리는 북극해빙이 감소하면서 툰드라지역의 탄소 방출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안병욱 위원장은 현재 기후위기 인식을 어렵게 하는 이유에 대해 잠행성 정상상태(Creeping Normalcy),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환

경 멜랑콜리아(Environmental Melancholia)를 꼽았다. 대기 오염과 관련해서는 현재 세계 인구의 90%가 대기오염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피해 비용은 매년 5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국내의 경우, 1군 발암물질로서 직접적인 인체피해를 유발하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선진국보다 2배 높은 수준이며, 그 요인으로 국내, 국외, 기상 요인으로 꼽았다. 이 중에서 통제가능한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보면, 산업 부문이 44%, 비도로 부문이 16%, 발전부분이 14%, 도로가 12% 기여한다고 한다. 기상조건에 따라 대기질도 달라지는데, 최근 전국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연간 미세먼지 나쁨 일수와 1~3월 농도가 증가하면서 국민 불안이 심화되었다고 한다. 향후 미세먼지 정책의 방향은 균형적 접근(국내

행동+국제협력), 단계적 접근(단기-> 중장기), 지역중심 접근(지자체역할 강화), 통합적 접근(기후-대기 연계)이 이루어져 해결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2.3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행사/학술/연구

1) 공간구조연구 특강 :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의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 : 컴팩트+네트워크 전략의 가능성

2019년 11월 12일 환경계획학과 정현주 교수의 공간구조연구 강의의 일환으로 특강을 개최하였다. 특강의 주제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의 국토 및 도시정책의 방향 - 컴팩트, 네트워크 전략의 가능성을 중심으로”로, 국토연구원의 권규상 책임연구원이 강연하였다. 그는 우리나라 도시화의 특징과 현재, 이론적 논의,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국토 및 도시정책 사례, 우리나라 도시의 맥락에서 컴팩트-네트워크 전략의 방향성 등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도시 간 관계 형태와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 직접불경제 효

과가 높은 우리나라 도시 특성 상 지역 차원에서 인구의 균등한 배분이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지역 차원에서의 형태적 다핵, 기능적 단핵, 도시 차원에서 도심 근접성 강화와 인구 집중의 완화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토 및 도시 구조 대안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권규상 책임연구원은 저성장을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 세대에게 있어 한국의 도시기본계획의 방향과 도시재생의 역할에 대하여 시사점을 던지며 특강을 마쳤다.

2.4 환경관리학 전공 행사/학술/연구

1) 취리히 대학 공동 워크숍 - Factor PI : Observing Extreme Environments On and Beyond Earth



2019년 10월 1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취리히 대학의 공동으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본 워크숍은 환경계획학과 정수중 교수 연구실과 취리히 대학 연구진이 함께 한 Zurich meets Seoul 2019의 Science program이었다. ‘Observing Extreme Environments On and Beyond Earth’를 주제로 한 이번 워크숍에서 정수중 교수, 취리히대학의 가브리엘라 교수, 포스텍의 국종성 교수, 극지연구소의 김주홍 박사, 취리히대학의 제클릭 박사의 순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정수중 교수는 “Is the Arctic carbon time bomb ticking?”의 제목으로,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북극 토양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를 배출시켜 지구 온난화를 더욱 가속화 시

킨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상 탄소 체류 시간의 변화를 관측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기 관측과 함께 모델을 통해서 전 세계의 탄소 저장고를 예측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가브리엘라 교수는 Arctic biodiversity, 국종성 교수는 Intensified Arctic warming by CO2 physiological forcing, 김주홍 박사는 Field observation of Arctic sea ice provides new insight into melting sea ice, 제클릭 박사는 Arctic surface energy fluxes 등 극지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발표를 하였다. 이번 공동 워크숍은 기후변화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생들에게 연구를 소개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2.5 환경조경학과 행사/학술/연구

1) 도시공원 계획과 관리 특강 : 전주시의 관계 중심 디자인

환경조경학과 조경진 교수가 담당하는 ‘도시공원 계획과 관리’ 수업은 도시공원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기술을 다루며 이에 대한 정책과 사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수업에서는 전주시의 ‘도시 총괄조경가’인 최신현 대표를 초청하여 전주의 전반적인 조경·건축의 방향성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최신현 대표는 현재 시작 단계에 있는 전주시의 조경·건축 계획의 골자가 되는 개념인 ‘관계 중심 디자인’에 대한 설명과 사례를 공유했다. 그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는 도시’인 ‘Biophilic city’에 대한 소개와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London National Park 2050’의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도시가 자연을 밀어내고

‘일’을 위해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가 도외시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Biophilic city’는 도시 안으로 다시 자연을 끌어들이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관계 중심의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들을 소개하였는데, 가장 강조되었던 것은 관계 중심의 디자인이었다. 전주시에 계획 중인 내용을 바탕으로 차가 불편한 도시, 걷고 싶은 도시, 오감을 자극하는 도시, 녹지율이 증대되는 도시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은 요소들은 시민들의 삶으로 완성될 것이라 논의하며 특강을 마쳤다. 향후 우리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중 한 가지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2.6 석박사과정 학생 국내외 학술 활동

1) 국제 학술 활동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Lina(박사과정), 이수진(박사과정), 이상훈(석사과정), Parth Bansal(석사졸업)**은 2019년 8월 22~24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열린 1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sian Planning Schools Association(APSA 2019)에서 각각 “Urban form and building energy use: a case study in Seoul (Lina)”, “An empirical analysis of building energy consumption using decision tree in different energy cluster areas in Seoul (이수진)”, “Reference Building Database - A Case Study of New York and Opportunities for Asian Cities(이상훈)”, “An Exploration of Classification Methods for Identifying Mixed Zones in GIS-based Local Climate Zones(LCZs) Mapping(Parth Bansal)”이라는 주제로 각각 연구 발표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신상규(박사과정)와 이영성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9년 8월 22~24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열린 1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sian Planning Schools Association(APSA 2019)에서 “Factors on Decline of Mid-Class Jobs in South Korea - Focused on Development of Automation Technology”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는 2013~2018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자동화 기술의 발전, 제조업 종사자수 감소, ICT 서비스업 종사자수 증가가 하위, 중간, 상위일자리 증감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보여주었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오다원(박사과정)과 박인권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9년 7월 8일 중국 심천에서 개최된 AsRES 2019 Conference에서 “Nocturnal vs. Diurnal: A Comparison of Land Use by Type of Commercial Districts”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해당 연구는 휴대폰 시그널을 바탕으로 수집된 현주인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 혼합도와 주·야간 상권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이수진(박사과정), Chris Curington(박사과정)**은 2019년 10월 16일- 18일 중국 샤먼에서 열린 Applied Energy Symposium: Low Carbon Cities and Urban Energy Systems에서 각각 “A pilot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density, air pollution and building energy use: A case study of Seoul, Korea”와 “Energy Policy Evolution And Urban Regime Changes In Seoul, South Korea 1996-2019: Implications For Planners”이라는 주제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홍철(박사과정)과 박인권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9년 11월 13~1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Pittsburgh)에서 개최된 North American Regional Science Council(NARSC)에서 “Is the well-being of neighboring cities important to me? Analysis of the spatial effect of social capital and urban amenities in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11~2017년 동안 한국 219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간패널모형을 이용하여 사회적 자본과 도시 어메니티가 주관적 삶의 만족감(SWB)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공요한(석사과정)**은 2019년 8월 22~24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열린

1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sian Planning Schools Association(APSA 2019)에서 "How to reduce insecurity feeling in the outside environment? Focusing on: Women Living Alone"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해당 연구는 여성안심귀가가 취약한 지역으로 신림역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어두운 지역(Blind spots)을 도출한 후 여성안심귀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4가지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박은비(석사과정)**는 2019년 8월 22-24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 Pacific Planning Societies(ICAPPS)에서 "Difference: Collaborative Planning and Silence focused on the case of Haebangchon Residents' Council"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는 공적 영역으로서의 협력적 계획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탐구하고, 이러한 동학이 본래의 민주적 정책 의도를 어떻게 실현하고 저해할 수 있는지 해방촌 도시 재생 사업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최형근(석사과정)**은 2019년 8월 22~24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열린 1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sian Planning Schools Association(APSA 2019)에서 "A study on the analysis of spatial distribution in shrinking city based on the issue of local extinction: Focused on Uiseong-gun in Korea"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해당 연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시대에 공간을 컴팩트하게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의성군을 대상으로 인구 지표 외에 기반시설, 표고 등 공간적 지표를 활용하여 컴팩트하게 이용될 공간을 도출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김우창(박사과정)**은 2019년 10월 26일~28일 열린 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Sociology in East Asia(ISESEA7)에서 "Becoming Victims of Residents around the Nuclear Power Plant: A Study on the Lawsuit of Kyundo's Family"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는 고리 원전 근처에 사는 군도네 가족이 어떻게 한수원을 상대로 건강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김종호(박사과정)**는 10월 23~26일 북경에서 열린 PKU-SNU Joint Workshop 및 12월 9~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19 American Geophysical Union (AGU) Fall Meeting에서 "A national level study on plant phenology across forest region of south korea during last decade"라는 제목으로 각각 구두발표와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산림 식물계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국의 식물계절 변화와 원인을 분석했다.
- **환경관리 전공 박선아(박사과정)과 김현석 교수(언론정보학과),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9년 10월 26일~28일 열린 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Sociology in East Asia(ISESEA7)에서 "Making Social Influence: Message Effects of PM reducing Behavior with Normative Appeals"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본 연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행동에 캠페인 메시지가 영향을 끼치는지를 실험하였다. 이를 통해 규범적 메시지의 설득효과에 대해 논의하며, 메시지가 어떠한 경로로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박진영(박사과정)**은 2019년 9월 4-7일 미국 뉴올리언즈(New Orleans)에서 열린 2019 4S(Society for Social Studies of Science) Annual Meeting에서 "Contested Interpretations of Toxic Substances and Marginalized Victims in Korea's Environmental Pollution Relief System"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했다. 이 연구에서는 김포시 개별입지공장 환경오염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과 적용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모색했다. 2019년 10월 26-28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개최된 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Sociology in East Asia(ISESEA7)에서는 "Rethinking Expert's Role as Advocate after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in Korea"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했다. 이 연구에서는 가슴기살균제 참사이후 전문가의 대응 활동을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과 옹호 관점에서 전문가의 대응 활동과 사회적 역할을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 **환경관리 전공 박채린(박사과정)**은 2019년 9월 2~5일 제주도에서 열린 The 20th WMO/IAEA Meeting on Carbon Dioxide, Other Greenhouse Gases, and Related Measurement Techniques(GGMT-2019)와 10월 23~26일 북경에서 열린 PKU-SNU Joint Workshop에서 "CO2 Enhancement over Seoul Capital Area from Space and Surface Measurements"라는 제목으로 구두발표를 하였다. 본 연구는 지상 및 위성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의 이산화탄소 농도 분석을 하였다. 또한 2019년 12월 9-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19 American Geophysical Union(AGU) Fall Meeting에서 "Understanding Urban Carbon Enhancement at the Megacity Using Satellite XCO2 Data: A Case Study of Seoul, South Korea" 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현상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이아름(박사과정)**은 10월 23~26일 북경에서 열린 PKU-SNU Joint Workshop 및 12월 9-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19 American Geophysical Union (AGU) Fall Meeting에서 "Deep learning on satellite data to predict particulate matter in Seoul, South Korea"라는 주제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반 방법을 이용하여 인공위성 데이터와 그 외 기상변수들을 활용해 서울 내 미세먼지 지상관측이 없는 지점에서도 그 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지상 관측소의 시/공간적 공백을 극복해 넘으로써 토지 피복에 따른 미세먼지의 농도 분포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 **환경관리 전공 김연수(석사과정)**은 12월 9-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19 American Geophysical Union (AGU) Fall Meeting에서 "Regional Scale Variations in Atmospheric CH4 Concentration in South Korea"라는 제목의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2005-2017년 기간 안면도에서 측정된 메탄 농도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메탄 배출량의 장기 추세를 추정하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와 기상 자료를 이용하여 그 이유를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박하영(석사과정)**은 2019년 9월 2~5일 제주도에서 열린 The 20th WMO/IAEA Meeting on Carbon Dioxide, Other Greenhouse Gases, and Related Measurement Techniques(GGMT-2019)에서 "Observing patterns of CO2 and air pollutants of cities using

satellite data”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공위성자료를 이용해 동일한 비교방법으로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을 도시 스케일로 관측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9년 11월 19-21일 서울에서 열린 The 10th GEMS Science Team Meeting에서 “Monitoring CO2 and air pollutants in cities using satellite data”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공위성자료를 활용해 전 세계 도시의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을 관측하고 둘의 상관성을 통해 각 도시의 배출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향후 발사될 한국환경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 (GEMS)와의 시너지의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심소정(석사과정)**은 2019년 9월 2~5일 제주도에서 열린 The 20th WMO/IAEA Meeting on Carbon Dioxide, Other Greenhouse Gases, and Related Measurement Techniques(GGMT-2019)에서 “CO2 and air quality over megacity: a case study of Seoul, Korea”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 도심 겨울 기간을 대상으로 고정관측으로 측정된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 간에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 **환경관리 전공 여재호(석사과정)**는 2019년 8월 26~29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AGU CHAPMAN CONFERENCE - Understanding Carbon Climate Feedbacks에서 “Simulated changes in carbon residence time across the Globe for the last five decades”라는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본 학회에서는 탄소 순환과 관련하여 최신의 관측 및 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연구들을 접할 수 있었다.
- **환경관리 전공 이나현(석사과정)과 정수종 교수(환경계획학과)**는 12월 9-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19 American Geophysical Union (AGU) Fall Meeting에서 “Classification of heavy rainfall in Seoul using a machine learning”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집중호우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법을 접목하여 집중호우의 군집을 분류하고 각 군집별 강우강도와 일 변동 등을 확인하였다.
- **협동과정 조경학 장국화(박사과정),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Journal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43권에 “INVESTIGATING THE EFFECT OF A RAISED CYCLE TRACK, PHYSICAL SEPARATION, LAND USE AND NUMBER OF PEDESTRIAN ON CYCLISTS’ GAZE BEHAVIOR”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출판하였다. 이 논문은 물리적 환경이 자전거 이용자들의 응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국내학술활동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승화(박사수료)**는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43권 2호에 “노인의 스포츠활동 유형에 따른 스포츠참여 및 스포츠관람 선호도 차이 분석”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연구는 노인의 스포츠 활동 유형에 따른 스포츠참여와 스포츠관람 간의 선호도 차이 분석을 통해 노인의 스포츠 활동을 추진 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단초를 제공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문현(박사과정), 박재희, 환경관리 전공 박시현, 이석영(이상 석사과정), Tsolmon Bayarsaikhan(박사수료), 김태형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서울시연구 제20권 3호에 “장래 자동차 주말통행 예측: 서울시 통행량 및 통행시간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연구는 장래 서울시의 인구구조, 자동차 보유인식, 기술 및 건조환경의 변화가 자동차 총통행발생량과 총통행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8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장래 변화량을 예측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문현(박사과정), 환경관리 전공 박시현(석사과정), Tsolmon Bayarsaikhan(박사수료), 이석영,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박재희(이상 석사과정), 김태형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서울시연구 제20권 4호에 “가산자료 모형을 활용한 서울시 주말 통행 특성 분석: 자동차 통행발생량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 예정이다. 본 연구는 가구통행실태조사 2006년과 2010년 주말 자료와 사회 경제 건조환경 변수를 사용하여 음이향, 허들, 영과잉 음이향 회귀모형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의 주말 통행특성을 도출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이새롬(박사수료)**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54권 4호에 “문화지구 업체 특성별 생존 및 폐업위험에 관한 실증분석”의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연구는 사업체의 장기 운영을 통해 문화특화지역의 장소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개별 사업체 특성에 따른 폐업위험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사업체의 업종/규모/정착시기 등에 따라 폐업위험이 상이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지구 제도 운영에서 업체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이지원(박사과정)과 김태형 교수(환경계획학과)**는 국토연구 102권에 “서울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특성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서울시의 424개 행정동/교통분석존을 대상으로 도시 환경 요인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장석길(박사과정)과 환경관리 전공 Bayarsaikhan Tsolmon(박사수료)**은 인간·환경·미래 2019년 가을 제23호에 “노마드적 가치관이 지속가능성에 주는 함의”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모호성의 원인을 지속가능성의 세계관과 실천적 규범을 매개하는 공동의 가치관의 부재로 정의하고, 현 세대 지속가능성 개념의 보완을 위해 고대 유목민들의 노마드적(Nomadic) 가치관이 갖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 **환경관리 전공 김우창(박사과정),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경제와 사회 123호(9월)에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사업 합의의 의미와 맥락: 합의 주민의 관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반대 주민이 아니라 합의한 주민들은 어떠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김재문(박사과정)**은 대한건축학회 제35권 10호에 “국내 중규모 업무용 건물의 녹색 건축인증 등급별 추가공사 비용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2018년 9월 개정된 녹색건축 인증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의 Cost Impact를 분석해, 등급별 추가공사비용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이아름(박사과정), 정수종 교수(환경계획학과)**는 대기지 29권 5호 pp1-10에 “바람장 분석을 통한 도시숲 미세먼지 관측 장비 설치 지점 선정”을 주제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지형적 특징을 고려한 바람장 분석을 통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설치 예정인 미세먼지 측정넷의 최적 위치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향후 이 논문에서 제안한 위치를 기반으로 설치될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을 통해 도시숲 내외의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환경관리전공 이찬희(박사과정), 안새롬(환경교육전공 박사과정)과 윤순진 교수, 홍종호 교수(이상 환경계획학과)**는 아태연구 제26권 3호에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본 북한의 기후변화 담론 변화”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북한의 대표 언론매체인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의 보도 추이와 특정 사건 전후의 담론 변화 검토를 통해 북한의 기후변화 이해와 대응 의지 및 요구 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남북 기후협력의 방향과 방안을 모색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한진이(박사수료)와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서울시연구 20권 3호 61-77에 “자치구 미니태양광 보조금 확산과 정책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미니태양광 추가보조금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효과와 정책 확산 요인을 밝혀냈다. 자치구 추가보조금 지급 가구 수가 실제 설치가구 수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고, 정책 확산의 내부요인으로 재정적 요인과 지자체장의 의지와 리더십이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관리 전공 한진이, 소윤미, 김지혜(이상 박사수료), 협동과정 조경학 김지환(박사과정),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환경정책 27권 3호 105-133에 “한국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평가: 전기 전자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전자기업의 기후행동을 평가하고 일본의 경우와 비교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자기업들의 기후행동 목표가 실질적인 기후변화 행동으로 연계되지 않았고, 외국인 투자지분과 기후행동 점수가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기업들은 목표 설정에 더 적극적이고, 정보공개를 잘하고 있었으나, 기업이 스스로 제시한 목표 달성과 성과 이행 비교는 일본 기업들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조경학과 김명천(석사수료), 김보미, 배기탁(이상 지역자산화협동조합)**은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30권 5호에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진단요소 도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은 도시재생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특성을 분석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진단하는 지표 사례를 분석하여 카테고리를 도출하고 세부 진단요소를 도출하였다.

2.7 석·박사과정 학생 수상 내용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9 추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진석(박사과정)은 2019년 10월 25-26일 부산시 동아대학교에서 열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9 추계학술대회에서 "수도권 시군구 간 인구이동에서의 국경효과에 대한 연령층별 실증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수도권 내 인구이동에 있어서 서울이라는 행정 경계의 존재가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국제통상학에서의 국경효과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물리적, 경제적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행정 경계의 존재가 인구이동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국경효과와 통제변수의 양상은 연령층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밝혔다.

제1회 숲과 나눔 환경 학술포럼 대상 맑은강 푸른하늘상 수상

환경관리 전공 김우창(박사과정)은 11월 27일 서울 LW 컨벤션에서 열린 제1회 숲과 나눔 환경 학술포럼에서 "원전 주변 주민의 피해자 되기: 군도네 가족의 운동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고, 대상(맑은강 푸른하늘상)을 수상하였다. 이 연구는 과학적 전문성은 과학자에게, 정치적 전문성은 정치인에게 이중의 위임을 하였지만, 결국 이를 배반당한 채 암이나 장애를 겪고 있는 고리 원전 근처에 사는 군도네 가족의 핵발전소 반대 운동을 분석하였다. 특히, 핵발전소 주민들 스스로가 안전과 위험 관리를 강조하는 지배적 위험 경관을 부정하고 새로운 위험 경관을 만들어냄으로써 기존의 탈핵 운동과는 주제와 내용이 다른 탈핵 운동의 모습을 포착하였다.

SK 행복나눔재단 글로벌 사회변화 Reboot 프로그램 최우수상 수상

환경관리 전공 노하은, 환경조경학과 김관수(이상 석사과정)는 8월 20일 SK 행복나눔재단에서 주최한 글로벌 사회변화 Reboot 프로그램에 Bloom Up 팀으로 참가하여 "베트남 초등학생의 쓰레기 문제 인식 변화를 위한 참여형 재활용 프로그램: 재활용 커뮤니티 정원"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SK 행복나눔재단 측으로부터 1,200만원을 지원 받아 참여자가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직접 해외지역에 실천하는 활동이다. 노하은은 베트남 하노이 인근 지역 초등학교를 직접 섭외하여 초등학생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2박 3일간의 교육프로그램과 5박 6일간의 정원 조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국립공원연구원 논문공모전 장려상 수상

환경조경학과 김지환(박사과정)은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주관한 논문공모전에서 "InVEST 모델을 이용한 무등산 국립공원 일대 서식처 가치평가와 NDVI 비교 연구"라는 제목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은 InVEST 모델을 이용하여 무등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4개 구의 서식처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이 결과를 식생지수를 나타내는 NDVI 지수와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대학교 수원캠퍼스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환경조경학과 김도은, 배광진, 함연수(이상 석사과정)는 서울대학교 기획처 및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주최·주관한 ‘서울대학교 수원캠퍼스(구. 농생대 부지)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여 11월 29일 최종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풍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 노동, 수확, 배움의 기쁨과 산책 등을 통해 수원 시민에게 따뜻한 품을 내어주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한강위를 걷는 천 가지 상상 공모전 한장의 상상 부문 문제해결상 수상

환경조경학과 배광진, 이가영, 황희정(이상 석사과정)는 서울시에서 주관한 “한강위를 걷는 천가지 상상 공모전_한장의 상상 부문”에서 “노들 플랫폼 야드”라는 제목으로 문제해결상을 수상하였다. 노들섬 인근에 인공섬을 모듈형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2019 서울연구논문 공모전 장려상

환경관리 전공 김재문(이상 박사과정)은 서울시 및 서울연구원이 주관하는 서울연구논문 공모전에서 “도시에너지전환 정책을 연계한 노인세대 주거안정 개선정책 제안 :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 개선효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지정주제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노후주택의 에너지, 환경 및 건강상 문제점을 제시하고,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보조금)을 결합한 서민주거 안정 정책개념을 제안하였다.

2.8 석·박사 학생 인턴십 활동

환경대학원은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5년 2학기부터 도시·환경 인턴십(Internship on City and Environment)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대학원 학생들은 국제기구, 도시·건축·조경설계사무소, 환경 관련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인턴십 활동에 참여 중이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19년 1학기에 도시·환경 인턴십 교과목을 수강한 한 학생의 인턴십 사례를 소개한다.

해안건축 인턴십 활동 소감

—
환경조경학과
임다섭(석사과정)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환경대학원에 진학하여 실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실제로 도시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내가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그런 와중에 지도교수님의 소개로 해안건축 하계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도시건축본부에서 약 한달 동안 참여하였는데 그곳에서 두 가지의 배운 점들이 있었다.

첫째는 먼저 도시설계가 다른 부서와 협업하면서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조정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내용들과 사회 이슈 등 많은 정보를 깊게 알고 있어야 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례나 법률 등을 조사하게 되었을 때는 단순히 정보를 찾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왜 그런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번째는 팀이 하나로 뭉치면서 서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다. 팀 내에서도 본부장님과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심지어 실습생이었던 나도 단순히 업무를 통보 받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게 하고 어떠한 작업이 필요한지 팀원들과 함께 생각하게끔 하였다. 덕분에 주어진 업무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팀원들과도 더 친해질 수 있었다. 그러한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팀원 모두가 프로젝트에 집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좋은 팀워크가 유지될 수 있었다 생각한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귀중한 시간이었다.

3.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3.1 국제심포지엄 「2019년 스마트 포용도시 포럼」 개최 (성동구 공동 개최)



* 사진 성동구청 제공

환경계획연구소는 서울시 성동구와 함께 2019년 11월 25일 21세기 포용적 도시혁신을 주제로 하는 ‘2019 스마트포용도시 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성종상 환경계획연구소장은 이날 “단순한 테크놀로지(과학기술)나 물질 차원이 아닌 사람과 인문 중심의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에 “첨단기술을 돈이 아닌 사람을 위해 활용하고 사회적 약자를 똑똑하게 보살피는 포용력 있는 스마트시티를 꿈꾼다”고 말하였다.

기조연설에는 톰 머피 前 미국 피츠버그 시장이 참석하였다. 그는 “21세기 도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12년 동안 피츠버그 시

장을 지내면서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일자리 창출형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노하우를 소개하였다. 주제발표자로는 잉룽(瀛龍) 중국 칭화대 교수를 비롯하여 환경대학원 이영성 교수, 장지인 홍익대 교수, 윤희연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하여 포용적 도시혁신 전략에 대한 주요 도시의 우수 사례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마지막 순서인 ‘포용도시 담론 한마당’에서는 기조연설과 주제발표에 참여한 발표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진행하며 보다 구체적인 도시 포용성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3.2 환경대학원 외국인학생 리더십 프로그램 (ISLP, International Students Leadership Program)



환경계획연구소는 2019년 2학기 ‘환경계획연구소 국제학생 리더십 프로그램(ISLP, International Students Leadership Program)’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환경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외국인 학생들의 학업과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처음 시행 되었으며, 앞으로도 매학기 2회의 간담회를 포함한 각종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시행된 첫 간담회는 현재 환경대학원에 재학 중인 국제학생 28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진행 하였으며, 총 16명의 외국인 학생이 참여했다. 두 번째 행사는 국제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의 학습 성과 및 교내생활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학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환경대학원 종강파티와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3.2 환경계획연구소 과제 현황(2019.7-12 종료 기준)

NO	과제명	연구 책임자	발주(지원)기관
1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2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3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4	광양주택지역 운영방안 자문	이영성	민간기관
5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통수요 추정 및 경제성 분석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6	사회적 수용성 높은 숲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대안적 접근 방안 모색	윤순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문화디자인 벨리 활성화 및 사업추진 방안 수립용역	김세훈	한국토지주택공사
8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구축사업 I : 광역지자체(시·도단위) 통합관리 모델 구축	김태형	환경부
9	산림관광 상품으로서 정원가도(庭園街圖) 구축	성종상	산림청
10	훼손 유형별 진단평가 체계 및 생태복원 모델 개발	송영근	환경부
11	한반도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예측 시스템 개발	정수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논현동, 압구정동 일대 슈퍼블록 재생계획(안) 마련	김세훈	지방자치단체
13	중금속의 다매체 예측모형 개발 및 적용성 평가(I)	이동수	국립환경과학원
14	호수공원 리모델링 기본계획 연구 부분위탁 용역	성종상	지방자치단체
15	스마트신호 기반 긴급차량 경로관리 및 신호서비스 알고리즘 개발	이영인	경찰청
16	서울시 지역별 폭우 특성 규명을 위한 상세 강수 분석 연구용역	정수종	지방자치단체
17	인공지능기법을 이용한 숲 내외 미세먼지 진단기술 개발	정수종	산림청
18	동위원소를 이용한 미세먼지 기원 추적	오능환	산림청
19	충남 지방도 635호선(복수~진산) 확포장공사 타당성 조사 수요 및 편익추정	장수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	근교농촌 마을의 여건변화와 정책 수요 분석	이영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현황 조사 및 재원 마련	김경민	행정안전부
22	한국 명산의 숲 정원 고유문화 발굴 연구 - 경북 선비문화권 내 조성 유학자를 중심으로	성종상	산림청
23	팹시티(Fab city) 서울 중 장기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김경민	지방자치단체
24	실측기반 초고정밀 3차원 수관구조의 재현과 동태모델링의 피지빌리티에 대한 연구	송영근	교육부
25	하천 내 유기화합물의 생지화학적 특성에 따른 하천-대기 간 이산화탄소의 이동량 변화	오능환	교육부
26	수서1단지 공간복지 환경개선 사업제안 용역	서예례	지방자치단체
27	식물계절 모니터링 자료 표준화 및 분석연구	정수종	산림청
28	파주 지방도 363호선 아동-금승 확장 타당성조사 수요 및 편익 추정	장수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9	동아시아 대기 정체 예측 시스템 개발	정수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와 가치 추정 및 사례 분석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31	지자체 교통안전관리체계 효율성 분석	장수은	한국교통연구원
3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도시/유역 규모 홍수 및 가뭄 평가 시스템 개발	정수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	콜드체인 시스템 도입을 위한 국내 콜드체인 수송 현황 조사	장수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4	환경생태정보 전달을 위한 가상현실 사용자 경험디자인 연구	조경진	서울대학교
35	[1차년도] 인공지능 보조 설계: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설계를 위한 스마트 설계	Quan Jige	서울대학교
36	[1차년도] 기후변화에 따른 지면탄소순환 변동 메커니즘 규명	정수종	서울대학교

4. 교수 동정

환경계획학과 박인권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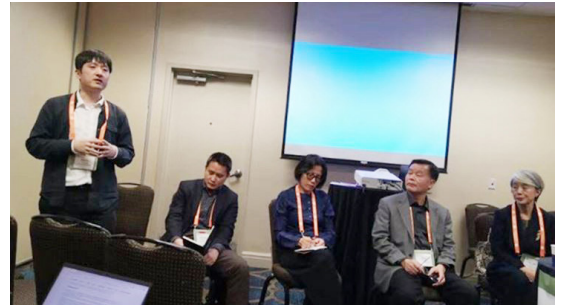
- 박인권 교수는 7월 1~5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17회 IASC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Commons) 학술대회 참석하여 “Urban Commons as a Sanctuary for the Excluded: An Experience of Reclaiming a Commons in Seoul, Korea”의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11월 14~16일에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2019 북미지역학회에 참석하여 “Spatial panel analysi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cities: Evidence from South Korea”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 지난 9월에는 공간과사회 제29권 3호에 “도시 커먼즈 관리의 내재적 모순과 도전들 : 경의선공유지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 학술활동으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포용도시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세미나 시리즈 ‘공유지로서의 도시’를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부동산, 사회주택 등에 대한 세미나와 포용도시 관련 현장답사, 심포지엄 등을 진행하였다.

환경계획학과 지거첸Jige Quan 교수

- 지거첸 교수는 Environment and Planning B: Urban Analytics and City Science에 ‘Artificial intelligence-aided design: Smart Design for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 Quan, S. J.*, Park, J., Economou, A., & Lee, S. Artificial intelligence-aided design: Smart Design for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Environment and Planning B: Urban Analytics and City Science 46(8), 1581-1599. 2019.
- 2019년 7월에는 중국 우환에서 개최된 The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s in Urban Planning and Urban Management 에서 ‘A Parametric Computer Experiment on Urban Form, Microclimate and Human Comfort in Downtown Atlanta’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8월에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열린 The 1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sian Planning Schools Association에서 ‘Smart Design for Sustainable Neighborhoods - a case study of high-density and low-carbon neighborhood design in Gangnam, Seoul’ 논문을 발표하였다. 10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The 59th 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s of Planning (ACSP) Annual Conference에서 ‘Urban-GANs: A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Model for Urban Design Computation’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 2019년 7월에는 ‘Chinese Cities and Their Plann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SNU in Beijing program’을 주제로 서울대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OIA)에서 강연을 하였다. 9월 27일과 10



월 4일에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Open training sessions으로 파이썬 소개와 Numpy와 Pandas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하였다.



환경계획학과 홍종호 교수

- 홍종호 교수는 2019년 8월 2일~4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The 8th Congress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EAAERE) 학술대회에서 “Smoke in School: The impact of particulate matter(PM) on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students in South Korea”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기간 열린 이사회에서 홍교수는 임기 2년의 신임 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020년 제9차 학술대회는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홍종호 교수(한국재정학회 회장)는 2019년 10월 25일~26일 제주도 제주시에서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회 기간 중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하였다.

환경계획학과 오능환 교수

- 오능환 교수는 9월 1일부터 환경대학원 교무부원장, 환경계획학과장(겸직)에 임명되었다.
- 오능환 교수는 8월 14일 이규연 박사과정생과 함께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토양 입단이 토양유기물 분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9월 19일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열린 생지화학 연구발전방안수립 워크샵에서 강수에 포함된 유기물의 탄소연대 측정 결과와 이것이 갖는 함의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11월 5일에는 에콰도르 USFQ 대학교 연구/국제협력부총장(Prof. Diego Quiroga)이 환경학 분야 연구협력 추진을 위해 서울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환경대학원의 환경학/생태학 분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연구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환경계획학과 윤순진 교수

-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4)호에 “베트남 사례에 나타난 한국 녹색 ODA 전략의 특성과 교훈”(이승지·윤순진)을, 경제와 사회 123호에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사업 합의의 의미와 맥락: 합의 주민의 관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김우창·윤순진)을 게재하였다. 환경정책 27(3)호에는 “한국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평가: 전기·전자·통신 분야를 중심으로”(한진이, 윤순진, 소윤미, 김지혜, 김지환)를, 아태연구 26(3)호에는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본 북한의 기후변화 담론 변화”(윤순진, 안새롬, 홍종호, 이찬희)를 게재하였고, 서울도시연구 20(3)호에 “시가지 미니태양광 보조금 확산과 정책 효과 분석”(한진이·윤순진)을 게재하였다. 2019년 11월에 출판된 시민의 교양 과학 (생각의 힘) 집필 작업에 참여하여 “에너지 전환의 쟁점과 과제”를 작성하였다.

- 또한, 7월 페루에서 개최한 17th Glob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Common에서 “Who has the right to enjoy and change the landscape? Focused on local communities’ resistance against PV installations” 연구와 “Principles required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to manage global atmospheric commons: Based on the experience of traditional commons management in South Korea”라는 제목의 단독 발표를 하였고, 10월 KIREC Seoul 2019: The 8th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Conference에서는 “Social Dimension of the Energy Transition: How can decentralized renewable energy democratize our energy systems?” 단독발표를, 10월 서울 국제에너지 포럼 2019에서는 Assessment of Achievements & Challenges of OLNPP: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단독발표를 하였다. The 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Sociology in East Asia (ISESEA-7)에서는 “Climate Change Governance in Korea: The Case of INDC Establishment”, “Energy Transition and Democracy: The Case of Seoul”에 대해 단독발표를, “Making Social Influence: Seeking for Message Effects of PM reducing behavior with Normative Appeals”(박선아·윤순진), “The Forming of Counter-Discourse through Citizen-Expert Cooperation: The Case of Zero-Energy Buildings”(조미성·윤순진) 연구를 공동 발표하였다.
- 경향신문 ‘녹색세상’ 고정필진으로 활동하며, “환경교육은 교육부의 의무다(11.29)”,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변화”(10.31)”, “이제는 기후행동이 필요한 때(10.3)”, “아마존 산불, 남의 일 아니다(8.29)”, “에너지전환, 빠른 변화를(8.1)”, “기후위기시대, 폭염의 경고(7.4)” 등의 칼럼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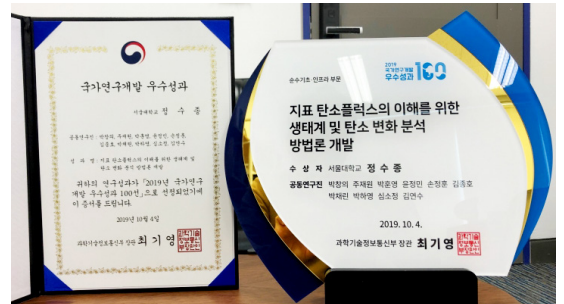
환경계획학과 정수종 교수

- 정수종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9년 8월, SCI급 저널인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에 ‘Working towards confident spaceborne monitoring of carbon emissions from cities using Orbiting Carbon Observatory-2’라는 제목의 논문에 교신 저자로 참여하였고, SCI급 저널인 Geophysical Research Letter 저널에 ‘Inequal responses of drylands to radiative forcing geoengineering methods’라는 제목의 논문에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다. 또한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저널에 ‘바람장 분석을 통한 도시숲 미세먼지 관측 장비 설치 지점 선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교신 저자로 참여하였다.
- 2019년 8월에는 환경대학원과 연세대학교 공동 세미나인 ‘2019 Air Quality and Greenhouse Gases Workshop’을 주최하였으며, 9월에 제주도에서 개최된 GGMT-2019 (WMO/IAEA Meeting on Carbon Dioxide, Other Greenhouse Gases, and Related Measurement

Techniques) 국제학술대회에 Local committee로 참여하였다. 9월에 평창에서 열린 대한민국 탄소포럼 2019에서 '대기 관측 및 모델을 이용한 한반도 온실가스 진단'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10월에 환경대학원에서 열린 Zurich meets Seoul 2019 Science program 'Observing Extreme Environments On and Beyond Earth'를 주제로 한 워크샵에서 "Is the Arctic carbon time bomb ticking?"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북경대학교 Shilong Piao 교수 연구팀과 SNU-PKU joint workshop을 북경에서 개최하였다. 11월에는 경주에서 개최된 2019 한국기상학회 가을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 정수종 교수는 2019년 8월에 서울기술연구원 기술평가위원으로, 산림청 미세먼지 대응 협의회 위원으로, 12월에는 한국기상학회 환경 및 응용기상 분과 학술위원장으로 위촉 받았다.
- 특히 10월에는 '지표 탄소플럭스의 이해를 위한 생태계 및 탄소 변화 분석 방법론 개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은 정부 지원을 받아 수행한 6만 3천여 개의 과제 중 100개 과제가 선정된 것이다.



환경조경학과 조경진 교수

- 환경조경학과 조경진 교수는 다음과 같은 학술 발표 및 기조 강연 등을 하였다.
 - 7월 21일 일본 히로시마대학교 주최로 열린 평화관광 국제회의인 Weaving Peace through Heritage Tourism에서 Presenting Cherwon Farmer's Lifestory by Curating Rice Story in DMZ Exhibition” 주제 발표
 - 8월 31일 일본 치바대학교에서 열린 SPSPD 2019에서 “Resilient Peace and DMZ Landscape/Art Project”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
 - 10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런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The Real DMZ Project: Negotiating Borders에 기획 및 작가로 참여, 10월 3일 Artist Talk에 연사로 참가
 - 10월 9일 호주 멜버른 RMIT대학교 조경학과에서 Pedagogy on Community Planning으로 강연

및 워크숍 진행

- 10월 10일 멜버른에서 열린 2019 호주 조경 축제에서 “공원의 정치학: 서울의 사례”를 주제로 기조 강연
- 10월 18일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2019 공원학개론에서 “공원 아카이브의 범위와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
- 10월 24일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에 열린 숲으로 도시혁명 심포지움에서 “세계 도시공원녹지정책의 혁신사례” 발표
- 11월 15일 공공일호 001스테이지에서 열린 제 3차 AURI 경관포럼에서 “철원 철새평화타운 조성 과정” 발표
- 11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공존, 공감, 공유공간으로서 DMZ 심포지움에서 “DMZ, 기억의 문제를 되집다”를 주제로 발표
- 11월 30일 중국 난징 난징임업대학교에서 열린 조경교육 설립자 Chen Zhi 탄생 1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에서 “남산의 경관변화”에 대하여 기조강연

환경조경학과 성종상 교수

- 성종상 교수는 지난 11월 1일(금)부터 2일(토)까지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원장 이현희)의 주관으로 개최된 제12회 「규장각 한국학 국제심포지움」의 제2세션 ‘만남과 나눔, 한국정원 속의 문화예술’을 기획, 운영하였다. 또한 ‘Back-garden of chang deok-gung Palace and King Jeong-jo : Garden as a stage for spatial politics with literary and martial arts’라는 제목으로 창덕궁 후원의 공간문화정치적 의미와 효용에 대해 발제하였다.
- 2019년 11월 11-13일 서울대학교와 연변대학교가 함께 공동개최한 「2019 Future Earth East Asia International Symposium ‘Social -Ecological Health in Asia’」 포럼에서 ‘Sangji(相地) as a Spatio-Geographical Culture of Korea’로 주제로 한국의 땅과 입지에 관련된 문화적 함의에 대해 발표하였다.
- 2019년 6월 30일 ~ 7월 5일 ANIH(Asian Network of Industrial Heritage)가 개최한 ‘제2회 아시아 산업유산 국제심포지움’에서 「Old Heritage for the Future: Recent Trend and Result of Transformation of Abandoned Railway Facility in Korea」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또한 ANIH측의 요청으로 청주대 박재민교수와 함께 한국의 산업유산에 관한 간략한 역사를 소개하는 글(Brief History of Modern Industrialization and Industrial Heritage in Korea)을 ANIH Bulletin에 수록하였다.
- 이코모스 한국위원회(ICOMOS-KOREA) 이사로서 올해 총 4회(3, 5, 9, 11월)에 걸친 ‘이코모스 포럼’을 기획하고 운영, 진행 하였다. 또한 이코모스 문화경관 분과위원회(ICOMOS-ISCCL) Voting Member로서 한국의 농촌 경관인 ‘제주밭담’에 대한 내용을 ‘World Rural Landscape Initiative’와



‘World Rural Landscape Atlas’ 등 이코모스 국제위원회 자료에 수록하였다.

2019 1차 이코모스포럼 문화유산으로서 농촌경관 재발견 - 개념과 이해	2019 2차 이코모스포럼 문화유산으로서 농촌경관 재발견 - 논의와 동향
일시 : 2019년 3월 28일(목) 오후 3시 30분-5시 30분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	일시 : 2019년 5월 23일(목) 오후 3시 30분-5시 30분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
발제 1: 한국의 농촌문화유산 - 김석희(문화재청 사무관) 발제 2: 한국 농촌경관의 특성과 현황 - 김상범(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농업연구관) 토론: 김승근(강동대학교 건축과 교수) 경해준(계명대학교 도시학부 생태조경학 전공 교수) 기획/진행: 성중상(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이사,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발표 1: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동향 : 청산도 구들장은 농업시스템을 중심으로 - 황길식(영소 IMC 대표) 발표 2: 농촌경관에서 한옥의 역할 - 신재선(전북대학교 강사) 토론: 김학래(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신지훈(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교수) 기획/진행: 성중상(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이사,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ICOMOS-KOREA,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	ICOMOS-KOREA,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
2019 3차 이코모스포럼 문화유산으로서 농촌경관 재발견 - 보전과 관리	2019 4차 이코모스포럼 문화유산으로서 농촌경관 재발견 - 보전과 관리
일시 : 2019년 9월 26일(목) 오후 3시 30분-6시 장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글로벌홀(82동 306호)	일시 : 2019년 11월 28일(목) 오후 3시 30분-6시 장소 : 용산아트홀 문화강좌실
발표 1: 경북지역 읍·면 건축자산 보전관리 실태 도현학(영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발표 2: 농업유산의 지향가치와 농업유산 발굴사례 - 경상북도 지역의 국가중요농업유산 발굴을 중심으로 구진혁(누리넷 대표) 토론: 이웅구(인천재능대학교 실내건축과 교수) 강영은((주)씨아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기업부설연구소 소장) 기획/진행: 성중상(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이사,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발표 1: 2019년 이코모스 학술심포지엄 "Rural Heritage - Landscapes and beyond" 구성과 주요 논의사항 김지혜(이코모스 한국위원회 간사) 배지연(서울시청 주택정책과 주무관) 발표 2: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실태 및 발전 방안 백승석(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차장) 발표 3: 농촌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과제 남해경(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한국농촌건축학회 회장) 토론: 김용진(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유원희(한국지리계연구회 국제지원단장) 기획/진행: 성중상(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이사,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ICOMOS-KOREA,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	ICOMOS-KOREA,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

- 또한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가 한국환경기자클럽, 한국환경회의와 공동주최하며 문화재청, 산림청과 환경부가 후원하는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 공모전에서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하였다.

환경조경학과 뷔베 콰이테르트 Wybe Kuitert 교수

- Wybe Kuitert (환경조경학과) 교수는 이번 9월 영국 Sheffield 대학교에서 열린 ‘Street Trees and Politics’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 또한 ICLEE 2019 국제 컨퍼런스에서 “Nature Based Solutions: Science or Narrative?” 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번 10월 일본 교토대학 예술대학 소속의 일본 정원 예술과 역사 문화 유산 연구소 주최로 열린 International Symposium IV “Japanese Spirit & Space - in Times of War and Peace” 에서는 “Japanese Spirit & Space - in Times of War and Peace” 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또한 교토에서 열린 International Colloquium IV “Japanese Gardens Outside Japan.” 에서는 “Japanese Gardens’ outside Japan? Meeting of the Streams” 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2019년 11월 1일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Meeting and Sharing, Culture and Art in Korean Garden’ at the 12th Kyujanggak Symposium on Korean Studies 에서 “On garden research, aesthetics, and Korean gardens -comment on a symposium” 세션을 발표했다.

- Wybe Kuitert 교수는 「日本美とヨーロッパ庭園 -[シャラワジ]を求めて」 연구논문을 日本 究 (Vol 59, pages 7-35 and VI, VII)에 게재하였다. 또한 “Use and Abuse of Design and Narratives for the Milano Expo 2015” 논문을 환경논총 / 環境論叢 第64卷: 51-91에 게재하였다. Wybe Kuitert 교수는 North American Japanese Garden Association 를 위해 Suzuki Hiroyuki가 지은 Landscape Gardener Ogawa Jihei and His Times - A Profile of Modern Japan에 대해 서평을 작성했다.

환경조경학과 김세훈 교수

- 김세훈 교수는 어반랩 도시기획협동조합과 함께 동탄2신도시 내 문화디자인밸리 설계 및 사업추진 방안 과제(LH공사 발주)를 올해 12월 마무리했다. 신도시 내 미디어몰과 경부직선화구간에 문화복합시설, 근린상업 및 주상복합, 대규모 광장과 공원녹지, 오피스 파크를 포함하는 안으로 현재 관련 인허가 변경과 공사용 도면 작성이 진행 중이다. 다른 과제로는 파주출판도시 3단계 사업 마스터플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약 30년 전 출판, 인쇄, 영상 관련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으로 파주출판도시 1단계(책의 도시)가 시작, 이후 2단계(책과 영화의 도시)도 준공되었다. 현재 3단계 사업협동조합 구성이 진행 중이고 조합을 중심으로 기존 1단계 남측 자유로변 약 24만평 부지에 3단계 조성을 준비 중이다.
- 학술적으로는 올해 5편의 SCI급/SCOPUS급 저널인 Urban Studies, Journal of Urban Design 등에 전영미, 장국화 학생 등과 공저자로 논문을 출판했다.

5. 석·박사과정

5.1 2018학년도 후기 졸업식 및 장학금 수여



2018학년도 후기 졸업식이 2019년 8월 29일 목요일에 거행되어 석사 37명(환경계획학과 25명, 환경조경학과 12명), 박사 21명(환경계획학과 11명, 협동과정 조경학 10명)에게 학위가 수여되었다. 졸업식에는 석사학위 우수논문으로 환경계획학과 양은주, 환경조경학과 송아라, 심소희에게 상장이 수여되었다.

또한 이날 졸업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환경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에는 동창회 장학금, 교통동문 장학금, 환경관리동문 장학금, 환경조경동문 장학금, 발전기금 장학금 등의 다섯 종류의 장학금이 있다. 발전기금 장학금은 내외부인사가 장학금으로 기탁한 발

전기금으로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故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 **故노용희 신진연구자상금** 등이 있다.

故 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은 미국 미시간 주립대 교수로서 세계 도시계획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다 작고하신 임길진 교수를 기리며 유가족이 기탁한 장학금으로, 2019년 2학기에는 **환경조경학과 황희정 학생(석사 3학기)**에게 수여되었다.

故 노용희 신진연구자상금은 환경대학원 초대 원장이신 **故 노용희 명예교수**의 유가족이 기탁한 장학금으로, 2019년 2학기에는 환경계획학과 **이지원 학생(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석사 2학기)**에게 수여되었다.

환경대학원 동창회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동창회에서 전공별 석사과정 재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한 4명의 학생에게 매학기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2019년도 2학기에는 **환경계획학과 정하림(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석사 3학기)**, **김은주(환경관리 전공 석사 2학기)**, **어중혁(교통 전공 석사 2학기)**, **환경조경학과 이가영(석사 3학기)**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교통동문회 장학금은 **황지환(교통전공 석사 2학기)**, **환경관리**

동문 장학금은 **박종문(환경관리전공 박사수료)**, **박채린(환경관리전공 박사 1학기)**, **환경조경동문 장학금**은 **임다섭(환경조경전공 석사 3학기)**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이번에 신설된 **환경관리전공 발전기금 학술장려금**은 학술활동이 우수한 환경관리전공 학생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손원익(환경관리전공 박사수료)**, **이승철(환경관리전공 박사수료)**, **박선아(환경관리전공 박사 3학기)**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5.2 학생회 활동

1) 모금활동

지난 9월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의 박사과정생 자르같이 위중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후 학생회는 자체적으로 약 한 달간 모금활동을 시작하였다. 환경대학원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한 데 모여 빠른 시간 안에 총 4,655,069원의 소중한 성금이 모이게 되었고, 이는 세 차례에 걸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원우와 가족에게 전달되었다. 함께 동참해주신 약 80여 명의 환경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그리고 교직원들의 도움의 손길 덕분에 2019학년도 2학기는 깊은 감동의 울림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



2) 아랫정원 재정비 및 기말 간식행사

아랫정원 오픈 1주년 맞이 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학기부터는 간식 품목을 더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종이컵을 사용하는 대신 환경을 생각하는 머그컵 이용을 장려하도록 환경대학원 마크가 부착된 컵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기말고사 기간과 논문 및 프로포절 발표 기간에는 공부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간식을 배부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3) 종강파티 – GSES Green Christmas Party

12월 13일에는 2019학년도 2학기 종강을 맞아 환경대학원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파티 <GSES Green Christmas Party>를 진행하였다.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크리스마스 선물 이벤트, 영화 상영, 케이터링 등 전공에 상관없이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었고 연말을 보다 뜻 깊게 보낼 수 있었다.





6.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6.1 제36기 해외시찰

제36기 도시 환경 미래전략과정에서는 7월 4일 (목)부터 7일(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해외시찰이 진행되었다.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찾아서, 그리고 유라시아 철도를 상상하다’를 주제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스리스크를 다녀왔다. 36기 과정생 32명, 선배펠로우 1명, 홍종호 대학원장과 조정진 주임 교수, 정현주 부주임교수, 장수는 교수가 함께 하였으며, 주요 답사지는 다음과 같다.

- 1일차** · 블라디보스토크 독수리 전망대, 아르세니예프 국립연해주 박물관
- 2일차** · 시베리아 횡단노선(블라디보스토크~우골나야) 체험
· 우수리스크 고려인 마을, 고려인 문화센터, 최재형 기념관 등
· 연해주 필하모니 극장(Pacific Symphony Orchestra)
- 3일차** · 블라디보스토크 철도청
· 연해주 국립미술관
· 루스키 섬 (극동연방대학교, 트레킹 등)
· 빠끄롭스키 공원, 아르바트 거리, 해양공원 등
- 4일차** · 혁명광장, 굽 옛 마당, 니콜라이 개선문 등
- *현장 강의** ‘유라시아 철도를 상상하다’ 장수는 교수



6.2 제36기 하반기 오픈특강

제36기 모두 5회의 오픈특강이 마련되었으며, 이중 2회는 하반기에 개최되었다. 오픈특강은 과정을 수료한 펠로우들과 환경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 및 동문들에게도 개방되며, 매회 60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 하반기 오픈특강 주제는 아래와 같다.

4차 “인구변화와 도시” 조영태 서울대 교수 9월 19일(목) 19:00

5차 “환경정책 추진방향” 조명래 환경부 장관 10월 24일(목) 19:00

오픈특강은 저녁 7시부터 환경대학원 3층 글로컬홀에서 진행되며, 좌석마련과 식사준비를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관심 있는 동문은 최고위과정 사무실(02-880-8525, snusgs@snu.ac.kr)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6.3 제36기 수료식

11월 14일(목),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제36기 도시 환경 미래전략과정의 수료식이 있었다. 제36기 과정은 2019년 3월 21일(목) 출범하여, 전 후반기 총 21주 동안 도시, 건축, 조경, 교통, 환경, 에너지 문제 등 관련된 33개 세션의 교육과 국내 및 해외답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동문 펠로우 및 석·박사과정 학생, 동문에게 개방되는 5회의 오픈특강도 마련되었다. 36기에 진행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강특강 -평화관광으로의 전환: 철원을 중심으로	조경진 교수
2	공간계획의 인문사회학	전상인 교수
3	국책사업의 경제성 평가	홍종호 환경대학원장
4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정수종 교수
5	도시 빅데이터 시각화: 데이터는 숫자가 아니다	김승범 대표/VW LAB
6	분경과 냉전경관	정근식 교수 / 서울대 사회학과
7	남북협력과 도시계획	이영성 교수
8	개성과 개성공단	황두진 대표 / 황두진건축사사무도
9	리더의 말과 글	강원국 초빙교수 / 전북대
10	세 여자로 본 근대 지식인의 초상	조선희 작가
11	오픈특강 I - 5G가 열어가게 새로운 세상	유영민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도시 제조업의 미래	남기범 교수 / 서울시립대
13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공간	정현주 교수
14	오픈특강 II - 메가폴리스와 메타폴리스	승효상 대표 / 이로재
15	스마트시티의 비전과 전략	김도년 교수 / 성균관대
16	그린을 통한 행복증진	성종상 교수
17	오픈특강 III - 열하일기 속의 공간	고미숙 작가
18	컴팩트 스마트 시티 서울	김세용 사장 / 서울주택도시공사
19	부동산개발의 새로운 전략	김승배 대표 / 피데스개발 대표
20	프롭테크놀로지	안성우 대표 / 직방
21	오픈특강 IV - 인구변화와 도시	조영태 교수 / 서울대
22	도시교통 혁신	장수은 교수
23	모빌리티의 변화	한상진 박사 / 교통연구원
24	숲, 미래도시 경쟁력	서울어린이대공원 / 前원장
25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 전환	윤순진 교수
26	도시미래와 예술	노소영 관장 / 아트센터 나비
27	도심주변 카페의 문화사	조현신 교수 / 국민대
28	환경정책 추진방향	조명래 장관 / 환경부
29	도시의 재구성	음성원 도시건축전문작가

*펠로우 플랫폼이 4개 세션 진행됨.

36명의 과정생 중 34명이 수료하였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갑수(글로벌그린시티 대표),
 김동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민석(에이치엠지 부사장),
 김범석(우리벽돌 대표),
 김상래(아트디자인센터 대표),
 김성훈(실내환경연구소 대표),
 김영기(GA건축사사무소 부사장),
 김정태(동양건설산업 SOC사업팀장)
 김태훈(한국감정원 상임이사)
 김한규(해안건축 본부장)
 김현근(공간설계 대표)
 나용환(서울주택도시공사공유재산관리단장)

문길주(대신이엔디 대표)
 박경태(법무법인 현 이사)
 박기훈(신동아건설 상무)
 박소아(다음소프트 센터장)
 박준석(아세아종합건설 대표)
 박철희(이천시청 도시개발과장)
 복성준(DA그륜건축사사무소 상무)
 안병관(제마코에어라인 대표)
 유영봉(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장)
 유주현(jhy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상석(부산이엔이 대표)
 이재면(수원시 도시개발국장)

이현복(정성모터스 대표)
 장민(KT 상무)
 전상우(정림건축 본부장)
 정태환(한국환경공단 본부장)
 최연희(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차장)
 최유진(소방청 주무관)
 최재원(아트센터 나비 수석큐레이터)
 최희철(한국환경복원기술 대표)
 홍성우(고양시청 팀장)
 황상철(K-water 처장)



7. 시민정원사

8월30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2019년도 하반기 ‘서울시민정원사 과정’이 시작되었다. 서울시민정원사 과정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공원 및 수목원, 마을가꾸기 등의 자원봉사자 방식으로 정원문화에 참여하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시 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다. 본 과정은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과정 중 이론 위주의 과정을 본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에서 주관하여 2년간 운영되다가 2016년부터 정원에 적합성이 높은 우리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로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총 75명의 수강생이 참여했으며, 강사진은 환경조경학과와 성종상 교수, 조경진 교수, 송영근 교수, 외부강사 정우건 소장(현 감이다esign 소장), 조성아 박사과정으로 구성되었고, 교과 편성은 다음과 같다. 2019 하반기 서울시민정원사 과정은 12월 13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수료식과 함께 막을 내렸다.

정원학개론, 동양정원사	서양조경사, 현대도시의 삶과 정원문화	도시생태와 정원	
성종상 교수	조경진 교수	송영근 교수	
정원설계1,3	정원설계2	교내답사	현장답사
정우건 소장	성종상 교수	조성아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아침고요수목원



8. 시민환경대학

시민환경대학 과정은 2009년부터 매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관악구청 녹색 환경과에서 함께 추진하여 운영되고 있다. 2019년 9월부터 12회 간 65명의 수강생과 함께 시작된 제12기 시민환경대학 과정은 관악구민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와 관악구의 학·관 협력을 통해 양질의 환경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악구의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었다. 또한, 전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장이 되고 있다. 제12기 수강생은 ‘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미세먼지, 유해화학제품 등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으며, 매주 심도 있는 질문으로 열의가 가득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학기 강사진은 환경계획학과의 이도원 명예교수, 이동수 교수, 홍종호 교수, 윤순진 교수, 오능환 교수, 정수종 교수, 김태형 교수, 환경조경학과의 성종상 교수, 공과대학의 한무영 교수, 국토환경연구소 이현정 책임 연구원,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우정현 교수로 구성되었으며, 각 강사별 교과편성은 아래와 같다.

이번 제12기 시민환경대학 과정을 수료한 48명의 수강생은 12월 13일 환경대학원 글로컬 홀에서 수료식을 했다. 이로써 제1기부터 12기까지의 수료생은 총 711명에 달한다.

No.	일자	강사명	소속	제목
1	9/4	이동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화학물질과 플라스틱
2	9/11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와 기후변화
3	9/18	오능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
4	9/25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도림천의 현재와 미래
5	10/2	한무영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기후변화시대 : 물의 순환과 재이용
6	10/16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7	10/23	이동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국내 폐기물 관리, 현황과 방향
8	10/30	성종상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그린을 통한 건강·행복 증진
9	11/6	이도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관악풍경과 환경생태
10	11/13	김태형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지속가능한 도시의 모습
11	11/20	우정현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미세먼지의 현황과 해결방향
12	11/27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원장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NEWSLETTER No. 24

동문소식



9. 동창회

9.1 환경대학원 총동창회 2019 홈커밍데이

11월 2일 토요일 환경대학원 동창회에서는 동문 홈커밍데이를 개최하였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행사에는 김연명 신임 동창회장(환경계획학과 85, 현 항공안전기술원 원장)을 비롯하여 동문 80여 명과 교수 및 재학생까지 총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오후 3시부터 개최된 1부 행사는 동문들과 재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로서, 각 전공별로 포럼과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최근 이슈에 대하여 토론하거나, 선후배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동문회는 관악구청과 공동으로 문화와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교통 전공 동문회는 토크콘서트, 환경관리 전공 동문회는 서울환경포럼 추계세미나, 조경 동문회는 토크콘서트를 각각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전공별 행사는 동문과 재학생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전공 동문회	주제
도시 및 지역계획	참여 디자인 기법에 의한 도시재생(부제: 문화가 흐르는 봉천천 살리기)
교통	토크콘서트 : 후배가 묻고 선배가 답한다
환경관리	서울환경포럼 : 융합과학 시대와 환경관리의 미래
조경 및 도시설계	토크콘서트 : 패러다임 전환기 지속가능한 조경 도시설계



동문소식 | 동창회

2부 홈커밍데이 공식행사에서는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발전기금을 납입한 기부자를 초청하여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환경대학원은 지난 1년 동안 100만 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납입한 기부자 총 15명에 대하여 명패를 제작하여 발전기금 Wall에 설치했는데, 이중 6명의 동문 기부자가 이번 행사에는 참석하였다. 예년과 다르게, 명패 설치의 영상으로 대체하고 기부자를 단상으로 모셔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보다 많은 동문들의 축하와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이번 홈커밍데이는 동창회 총회를 겸하여 개최하였으며, 김연명 동창회장 후보에 대한 인준 절차를 실시, 제23대 환경대학원 동창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김연명 신임 동창회장은 환경대학원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문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설문조사에 실시하는 등 열의를 갖고 있어, 향후 우리 동창회에 새로운 바람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동문소식 | 동창회

행사 후반부에는 서울대학교 국악동아리 '여민락'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흥겨운 가을 저녁이 되었으며, 행사 말미에는 동창회에서 준비한 기념품과 함께, 환경조경학과 박동천 동문(환경조경학과 87, 동일기술공사)이 후원한 마스크팩을 기념품으로 지급하면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여러 방면에서 지원해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긴 시간 참석해주신 모든 동문들과 교수 및 재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9.2 조경 및 도시설계 전공 동문회 : 환경조경학과 2학기 과제전

12월 18일 수요일 11시부터 환경대학원 글로컬 홀에서 환경조경학과 학생들이 이번 학기동안 수업에서 진행한 결과물을 전시하는 과제전이 개최하였다. 이번 과제전에서는 도시오픈스페이스 계획과 설계(지도교수 성종상), 도시경관시스템스튜디오(지도교수 Wybe Kuitert), 도시설계스튜디오2(지도교수 김세훈), 정원설계(지도강사 정우건), 단지설계(지도교수 이유미) 등 총 5개의 스튜디오 수업과 환경·생태계획(지도교수 송영근), 생태과정과 디자인 워크숍(지도교수 성종상) 등 2개의 이론 수업 결과물들, 총 45개의 결과물이 전시되었다.

이번 학기에도 저번 행사에 이어 실무에 계신 동문선배님들이 참여하여 우수설계 크리틱을 진행했으며, 대상에는 환경조경학과 박상천, 조형찬, 홍예지의 Link 3-BANDS to 과천(도시설계스튜디오2), 최우수상에는 환경조경학과 신우림, 임다섭, 최유나의 NOWON NUWON(도시경관시스템스튜디오), 우수상으로는 환경조경학과 정유민, 협동과정도시설계 리크리스틴의 ACTIVESCAPE Park(단지설계)와 환경조경학과 최현철, 이윤정 협동과정도시설계 이사벨라의 다시 흐르는 덕천(도시 오픈스페이스 계획과 설계), 환경조경학과 김관수의 Memory box(정원설계), 도시설계협동과정 김수인, 환경조경학과 김동현, 김승리의 동사힐로2040(도시설계스튜디오2)이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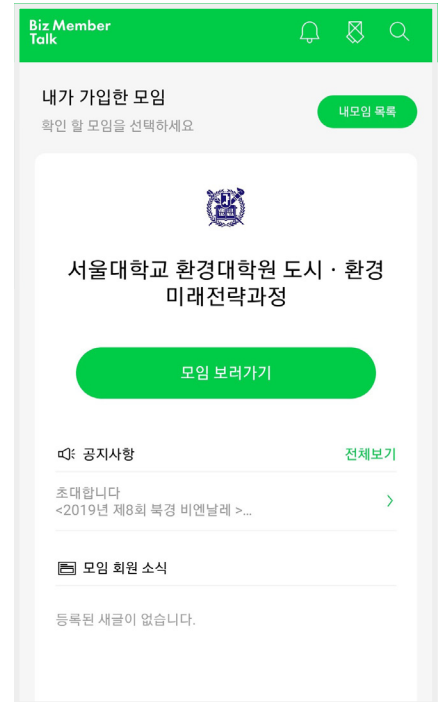
이번 심사에는 민범기(석사 88) 동창회장과 유형식(석사 94), 진린(석사 95), 이진욱(석사 05), 홍승후(석사 06) 동문들이 참석하여 주었다.



9.3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동창회

1) SGS 동창회 간담회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고위과정(SGS) 동창회는 9월 24일(화), 서초동 도우리에서 SGS 동창회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찬정 동창회장과 임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상반기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회원 간 소통을 위한 모바일 앱 ‘비즈멤버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비즈멤버톡’을 통해 회원 소식을 편리하게 전하고, 회원들의 비즈니스 정보도 쉽게 나눌 수 있어서, 동창회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2) SGS 동창회 ‘환경대학원 발전기금’ 출연(8~12월)

후배사랑 건물 증축사업기금



유종국
24기, 솔로몬산업 대표
100만원



김상래
36기, 아트디자인센터 대표
300만원



문길주
36기, 대신이엔디 대표
300만원



박준석
36기, 아세아종합건설 대표
1,000만원



이상석
36기, 부산이앤이 대표
100만원

환경대학원 위임기금

박준석
36기, 아세아종합건설 대표
500만원

10. 동문 동정

10.1 석·박사과정

- **최주섭 동문(도시 75, 아동문학가)**은 온가족이 함께 읽는 환경동화집 **대왕고래의 분노** 를 발간하였다. 이 책에는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대왕고래의 분노” 외에 페트병 티셔츠 등 16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최주섭 동문은 환경 관련 공사직 30여 년을 마치고 2015년에 아동문학가로 등단하여 2018년에 아름다운 글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저서로는 환경과 학개론 과 더불어 사는 세상 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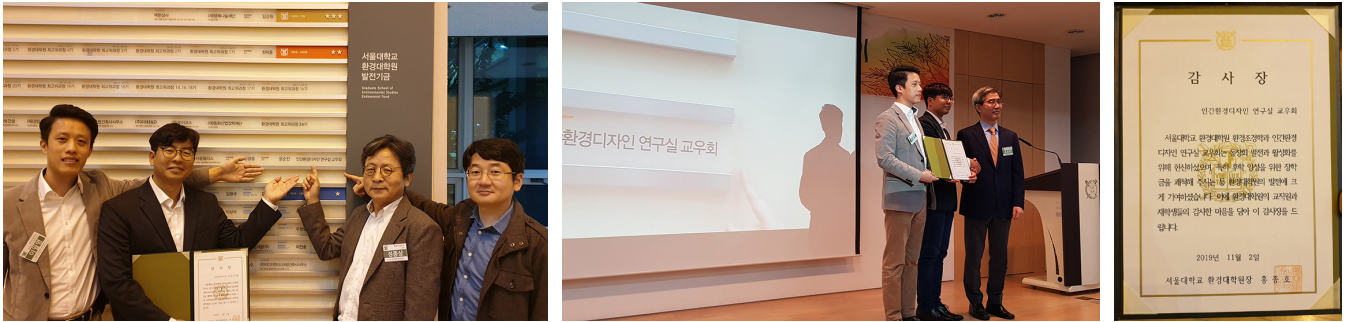
- **오순환 동문(도시 81)**의 이야기가 담긴 책 **유리천장을 넘다** (서울시 여성공무원의 일과 삶)가 지난 10월에 발간되었다. 이 책은 서울시 최초 조경직 여성공무원이었던 오순환 동문을 비롯하여 서울시의 각 분야에서 선구적으로 활동했던 여성공무원 6명의 이야기를 담은 구술자료집이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기 이전에 공직을 시작하여 여러 가지 차별을 인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목소리를 내어 스스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올라 수많은 후배 여성공무원들의 활동 발판을 마련한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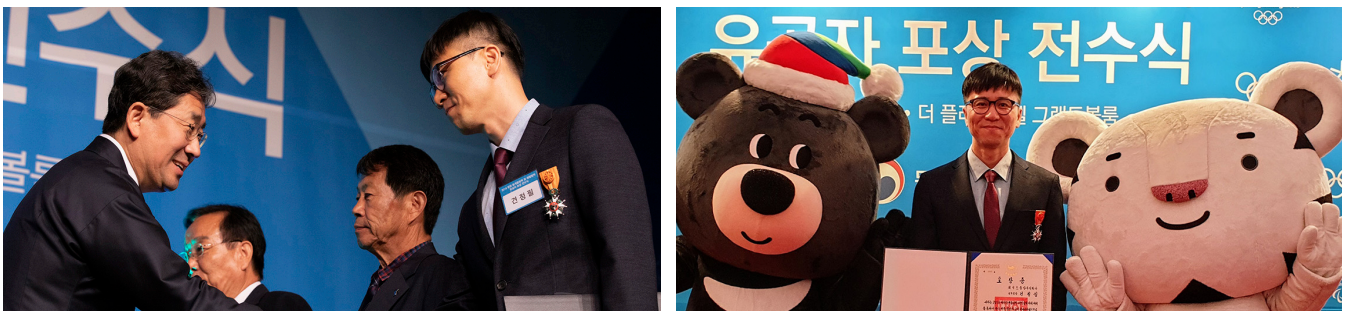
- **권재희 동문(도시 02, 목금토 건축사사무소 대표)**은 2019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작품명은 ‘산수간’으로 이하의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mokgeumto.co.kr/>)

- **김준형 동문(도시 02, 박사 04, 명지대학교 부교수)**은 11월 29일 서울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열린 SH공사 주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논문공모전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과밀주거 : 홈스왑(home-swap)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가?” 논문을 발표, 일반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환경조경학과 ‘인간환경디자인연구실 교우회’**는 연구실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함께 환경대학원 발전을 위한 장학금 마련에 힘을 써 2018년 하반기부터 1년에 걸쳐 총 1천만 원을 기부하였다. 이에 11월 2일에 개최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홈커밍데이에서 기부자 명패가 설치되었고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 **견정필 동문(조경 96, 휘닉스중앙(주) 총무팀장)**은 지난 9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체육포장을 수훈했다.



- **이진욱 동문(조경 05, 협동조경 15,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은 올해 9월 1일부로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로 임용 되었다. 이 교수는 상명대학교 조경학과를 나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조경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과에서 2019년 월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0.2 SGS

4기(11기) 자치회

- 정운경 펠로우(중앙미생물연구소 부회장)는 지난 9월 1일 CHA 의과학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연구교수로 임명장을 받았다. 강남 차음, 분당차병원 의사들과 통섭 천연물로 부작용 없이 질병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능성식품 연구를 하며 제품을 개발 성과물을 내고자 중앙미생물과도 다양하게 협업하게 되었다.

16기 자치회

- 김시찬 펠로우(서영대학교 교수)는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위촉기간: 2019.5.16. ~ 2021.5.1.)
- 김시찬 펠로우는 '2019년 제8회 북경 국제 예술 비엔날레 (The 8th Beijing International Art Biennale, China 2019)에 참여했다. 전시 주제는 '다채로운 세계, 함께하는 미래'로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중국 북경 '중국 국립미술관'에서 진행되었다.



20기 자치회

- SGS 20기 자치회는 11월 29일(금), 청담동 '칠량'에서 정기 총회 및 송년모임을 가졌다. 지승준 자치회장(해안건축 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펠로우가 참석하였으며, 신입 회장에 신상철 펠로우(KISHCA 산업안전지도사/기술사)를 추대하였다. 회장 이 취임식 및 신년모임은 1월 11일(토)에 남한산성 인근의 코코밸리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지승준 펠로우(해안건축 소장)는 지난 10월 안나프르나 보호구역 북서측, 해발 3,500~4,000m 무스탕지역의 15박 1일 트레킹을 다녀왔다.



- 최병진 펠로우는 지난 여름 충남 공주에 고추 등 채소류 농업과 팜스테이 '무릉펜션'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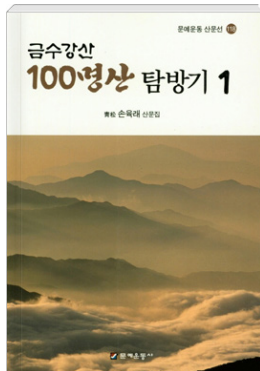
무릉펜션 Mureung Farm Stay	
최병진	충남 공주시 무릉동 462번지 T 041-852-1946 M 010-3695-0088 010-8519-8616 356-1256-4988-13 농업 최병진

24기 자치회

- **SGS 24기 자치회**는 12월 10일(화), 사당동 파스텔시티 ‘경복궁’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복승규 자치회장(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을 비롯한 15명의 펠로우가 참석하여 친교시간을 가졌다.



- **손육래 펠로우(KAVAS 평생교육원 교수)**는 지난 8월에 금수강산 100명산 탐방기 1, 2권을 출간했다.



28기 자치회

- **SGS 28기 자치회**는 11월 21일(목), 정동 ‘어반가든’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유태식 자치회장(아우디플라워 대표)을 비롯한 10여 명의 펠로우가 참석하였다.

29기 자치회

- **김종석 펠로우(기상청장)**는 지난 8월 ‘몽쳐야찬다’ 프로그램에 기상청 축구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출연했다.



30기 자치회

- **전태호 펠로우**는 지난 11월 ‘해운 춘천식숯불닭갈비’ 식당을 개업하였다. 위치는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6 1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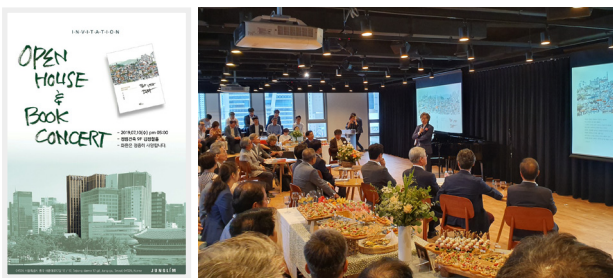


32기 자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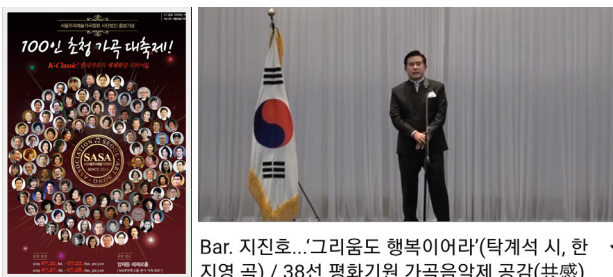
- **SGS 32기 자치회**는 10월 16일(수), 용산 세컨드치킨에서 제 번째 정기모임을 가졌다. 지진호 자치회장(뉴그린 창신 전무)을 비롯한 12명의 펠로우가 참석하였다.



- **임진우 펠로우(정림건축 대표)**의 북콘서트와 정림건축의 오픈하우스가 7월 10일(수) 태평로 정림건축 9층 김정철홀에서 개최되었다.



- **지진호 펠로우(뉴그린 창신 전무)**는 지난 여름 제21회 서울 예술가곡제 '100인 초청 가곡 대축제' 공연에 참여하였고, 8월 30일에 '38선 평화기원 가곡음악제'에서 '그리움도 행복이어라'를 불렀다.



Bar. 지진호... '그리움도 행복이어라' (탁계석 시, 한 지영 곡) / 38선 평화기원 가곡음악제 공감(共感)

- **이수복 펠로우(에스비이엔씨 대표)**는 지난 8월에 사무실을 이전했다.

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7. 현대지식산업센터 C동 1119호,
 02-34860-6691

33기 자치회

- **SGS 33기 자치회**는 10월 19일(토), 여덟 번째 문화기행의 일환으로 포천지역을 다녀왔다. 이영권 자치회장과 5명의 펠로우가 참석하였으며, 국립수목원, 포천 아트벨리, 채석단지 등을 돌아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34기 자치회

- **SGS 34기 자치회**는 7월 13일(토), 인천 을왕리 연안에서 요트모임을 가졌다. 김남규 자치회장(에스엠이주식회사 대표)을 비롯한 펠로우와 가족 등 15명이 참석하였다.



- **SGS 34기 자치회**는 10월 9일(수),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에서 골프모임을 가졌다. 남문에서 현철사로 이어지는 성곽길과 행궁을 둘러보았다. 모임에는 이지환 골프모임 대표(동양건설산업 이사)를 비롯한 12명의 펠로우가 함께 하였다.



- **SGS 34기 자치회**는 9월 21일(토), 남한산성에서 등산모임을 가졌다. 남문에서 현철사로 이어지는 성곽길과 행궁을 둘러보았다. 모임에는 최대림 등산모임 대표(장원조경 전문)를 비롯한 10여 명의 펠로우가 함께 하였다.



- **SGS 34기 자치회**는 12월 13일(금), '텍사스데 브라질' 센트럴시티점에서 2019송년회를 가졌다. 김남규 자치회장(에스엠이주식회사 대표)를 비롯한 15명의 펠로우가 참석하였다.



35기 자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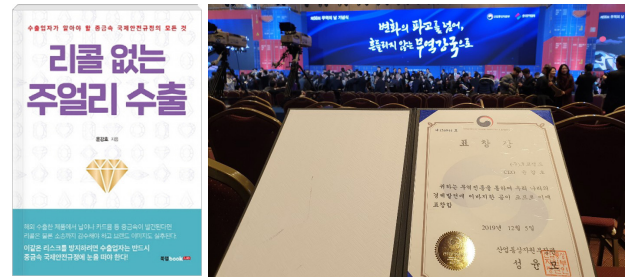
- **SGS 35기 자치회**는 8월 12일(월), ‘오밭탄’ 역삼점에서 두 번째 정기모임을 가졌다. 권현복 자치회장(경원목재 대표)과 15명의 펠로우가 참석하였다. 세 번째 정기모임은 ‘남도애꽃’ 역삼점에서 개최되었다. 2019년 마지막 정기모임 겸



송년모임은 12월 14~15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안동 문화탐방’을 다녀왔다. 퇴계종택, 도산서원, 한국국학진흥원, 월영교, 하회마을, 부용대 등을 둘러보았다. 정기총회에서는 신입 회장에 박상섭 펠로우(DA그룹 부사장), 사무총장에 주용돈 펠로우(대한소재 대표)가 추대되었고, 2020년 신년모임에서 이 취임식을 갖기로 하였다.



- **윤강호 펠로우(로프캠프 대표)**는 지난 9월에 리콜 없는 주얼리 수출을 출간했다. 이 책은 주얼리 수출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중금속 국제안전규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윤강호 펠로우는 12월 5일, ‘2019년 56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 **최성필 펠로우**는 지난 8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에 취임했다.



36기 자치회

- **SGS 36기 자치회**는 첫 번째 골프모임을 8월 24~25일에 경기도 광주 뉴서울CC에서, 두 번째 골프모임은 11월 9~10일에 당진 파인스톤CC에서 개최했다. 매번 박준석 자치회장(아세아종합건설 대표)을 비롯한 20여 명의 펠로우가 참여하여 친교시간을 가졌다.



환경대학원 발전기금

지금 바로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개인, 단체 기부 모두 가능)

부담없이

(1만 원부터)

원하는
방법으로

(일시납, 분할납, 약정 후 월납)

모두 가능합니다 연락만 주세요

문의 | 대외협력조교 윤병석 02-880-5669 gsesnews@snu.ac.kr

| 발전기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환경대학원 재학생 장학금

(연간 재학생 22명, 약 2천만 원)

※ 여러분의 이름으로 장학금도 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국제학술활동 경비 지원

(연간 재학생 12명 내외, 약 1천만 원)

환경대학원 시설 개선 사업

(학생 연구 및 복지 공간 개선)

|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제공)

1억 원 이상	기부자 명패 제작 (서울대 본부/연구공원 명예의 전당 등재)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종합건강검진 서비스 (1억 원당 1년 1회)	포스코 스포츠 센터 무료 이용 (1억 원당 1년)
1천만 원 이상	기부자 디지털 게시 (서울대 본부 명예의 전당)	근조기 발송 서비스	중앙도서관 평생 이용 미술관, 박물관 무료
1백만 원 이상	발전기금 회원카드 발급	중앙도서관 이용(1년) 호암 교수회관 할인	기부자 명패 제작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제37기 모집 안내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은
우리나라 국토, 도시, 환경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활동으로 발전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37기 과정에 참여할 분들을
새해 계획을 구상하는 지금부터 찾아보고자 합니다.
주변의 좋은 분들이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홍보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7기의 모집마감은 2020년 1월 31일(금)까지입니다.
상시접수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언제라도 행정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 | 전화 880-8525 E-mail snusgs@snu.ac.kr

전형일정

원서접수 | 2020년 1월 31일(금) 18:00까지 / 수시접수 가능
서류심사 및 면접 | 2월 3일(월) ~ 2월 7일(금)
합격자발표 | 2월 10일(월)
등록기간 | 2월 10일(월) ~ 2월 14일(금)
※국내사찰 비용은 등록금에 포함, 해외답사 비용은 별도

강좌일정

출범식 | 2020.3.19.(목)
국내답사 | 2020.3.20.(금) ~ 21(토)
전반기과정 | 2020.3.26.(목) ~ 6.25(목)
방학 | 2020.6.26.(금) ~ 2020.9.2(수) (방학 중 해외답사)
해외답사 | 2020.7.2 ~ 7.5
후반기과정 | 2020.9.3. ~ 10.29
수료식 | 2020.11.12